

『천지서상지』 편찬자 연구

박승홍 (한국외국어대학교 전 강사)

1. 머리말

최근 『천지서상지(天地瑞祥志)』라는 책이 한국과 일본, 중국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기 666년 살수진(薩守眞)이 완성하여 ‘대왕전하(大王殿下)’에게 바친 이 책은 일본에만 잔본이 전하는데¹⁾ 에도 시대까지 천문과 재이 해석에 널리 인용되었고, 신라와 백제 사이에 서약된 취리산 회맹문이 실려 있어서 한국사 자료로도 알려졌다.²⁾

『천지서상지』(이하 『서상지』)는 제목 그대로 하늘과 땅의 온갖 상서로운 조짐(과 흉한 조짐)들을 분야별로 적은 전문 유서(類書)라고 할 수 있다. 전체 20권 가운데 9권만 남았지만 권1에 남은 전체 목차를 보면, 대략 3분의 1인 7권이 천문 관련 내용이므로 천문서로 볼 수도 있다.

1*	계, 목차	5	서·남칠수	9	객성, 혜성	13	꿈	17*	물건
2	삼재	6	내관	10	무리, 구름	14*	음성, 귀신	18*	날짐승
3	일월식, 오성	7*	내관, 외관	11	천둥, 번개	15	식물	19*	길짐승
4	동·북칠수	8	유성	12*	바람, 비	16*	월령, 오행	20*	의례

표 1. 『천지서상지』 20권의 내용. 잔존한 9권은 권호에 ‘*’를 붙였다.

한편 편찬자인 태사(大史) 살수진(중국어 발음은 ‘싸 소우전’)은 당나라

투고 2012년 10월 8일. 심사 2013년 3월 17일. 게재 확정 2013년 3월 17일.

1) 도쿄 마에다 육덕회(前田育徳會)의 손케이카쿠 문고(尊經閣文庫)에 1686년 필사본이 있고, 그 모사본이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에 있다. 카나자와(金澤) 시립도서관의 카에츠노 문고(加越能文庫)에도 다른 책과 합본된 형태로 내용이 몇 줄 남아있다.

2) 朝鮮總督府 편, 『朝鮮史料集眞續解説』第一輯 (京城: 朝鮮總督府, 1937), 7-8쪽.

고조 때 태사령(太史令)을 지낸 뒤에 이(薛頤)³⁾의 가문 사람이고, 대왕전하는 고종의 태자인 리 홍(李弘)이라고 인식되었다.⁴⁾ 그런데 살수진은 신라인이고 대왕전하는 문무왕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이 권덕영에 의해 1999년 제기되었다.⁵⁾ 그 주장대로라면 『서상지』는 원효(617-686)의 『금강삼매경론』 등에 필적하는, 현존하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가 된다.

이후 2002년 김일권이 반론과 함께 『고려사』에서 『서상지』 인용문을 찾아냄으로써 새로운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했으며,⁶⁾ 권1과 권20의 역주⁷⁾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5년 미즈구치 모토키(水口幹記)가 새로운 근거를 추가하면서 살수진이 신라인일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가운데⁸⁾, 2012년에는 자오 이(趙益)와 진 청위(金程宇)가 대체로 권덕영의 논지를 보강하면서 살수진이 신라인라고 보았지만⁹⁾ 아직 편찬자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신라인이 쓴 천문서가 있다는 소식¹⁰⁾에 필자가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이후 『서상지』를 접하고 중국 문헌의 인용 일색인 점에 적잖이 실망하였으나, 많은 문장이 ‘자동사+之也’나 ‘명사+之也’로 끝나는 점에 주목하여 한문 어법이 변칙적이라는 점만은 일찌감치 간취했고 그 관점에서 다시 살

3) 교육부 안에서는 과거 중국 인명과 현재 쓰이지 않는 중국 역사 지명은 한국한자음으로 표기하지만, 여기서는 글쓰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예외 없이 엄익상, “중국어 한글 표기법 재수정안”, 『中語中文學』 31권 (2002), 111-135쪽에 따라 원음으로 적었다. 예컨대 ‘위(禹)’는 ‘우(禹)’의 잘못처럼 보이거나 yu의 표기이며, ‘순(舜)’이나 ‘한이(罕夷)’는 한국 한자음 표기처럼 보이지만 shun, hanyi의 표기이다. 일본어 표기는 김용각, “일본어 한글 표기의 문제점 고찰 및 개선안—발음교육의 측면에서”, 『日語日文學』 39권 (2008), 109-121쪽을 따랐다.

4) 太田晶二郎, “天地瑞祥志略説: 附けたり, 所引の唐令佚文”, 『東京大學史料編纂所報』 7호 (1972), 3쪽.

5) 권덕영, “『天地瑞祥志』 편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日本에 전래된 신라 天文地理書의 일례”, 『백산학보』 52호 (1999), 381-402쪽.

6) 김일권, “『天地瑞祥志』의 역사적 의미와 사료적 가치—撰者에 대한 재검토와 『高麗史』 所引 記事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26권 (2002), 221-268쪽.

7) 김용천·최현화 역주, 『천지서상지: 당 제국의 국가제사와 의례』 (예문서원, 2007).

8) 水口幹記, 『日本古代漢籍受容の史的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5).

9) 趙益·金程宇, “『天地瑞祥志』若干重要問題的再探討”, 『南京大學學報』 (哲學·人文科學·社會科學) 49卷 3期 (南京: 南京大學, 2012), 123-132쪽.

10) 김태식, “日 소장 고대 천문책은 신라 작품”, 『연합뉴스』, 1999. 7. 12,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90712193600340> (2012. 10. 8 접속)

편 결과 뜻밖에 ‘-中’, ‘-之’ 등 신라의 이두로 추정되는 표기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표기들이야말로 편찬자가 신라인이라는 유력한 근거라고 생각하여 본 논문을 구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두 표기를 확인하기 위한 국어학적 논의가 본 논문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지만, 편찬자가 신라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태사 관직을 지냈고 신라에서 구하기 어려웠을 방대한 중국 서적을 인용한 점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하고 신라 천문 기록과의 연관성, 한국 내의 전승, 일본 전래 경위 등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서상지』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지향하였다.

2. 기존 논점의 재검토

권덕영은 『서상지』를 신라인의 저술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먼저 살수진이 대왕전하에게 올린 글을 보자. (그림 1 참조)

신 수진은 아뢰입니다. 성품이 우매하여 깨우친 바가 없으나 엎드려 영지(令旨)를 받들었습니다. 삼가 하늘의 꾸밈음을 헤아리고 재앙을 미리 피해 한 사람¹¹⁾이 복을 받으면, 백성이 또한 안정됩니다. 그래서 신은 여러 학자들의 천문 서적을 널리 모으고, 도참 서적도 조사해 모았습니다. … 엎드려 생각컨대, 대왕전하께서 해택은 해와 달보다 빛나고 어진 교화는 하늘과 땅에 사무치며, 금겨울을 잡고 옷깃을 드리우시며, 옥형을 움직이며 병풍을 등지고 계십니다. 신이 다행히 좋은 때를 만나 말직을 받고 어리석은 식전에 따라 경솔하게 찬술하게 되었는데, 모아서 찬술한 바가 혹 조금이라도 불만한 것이 있다면 비록 죽는 날일지라도 살아있는 해와 같겠습니다. 지극히 황송하고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삼가 계를 올려 아뢰입니다. 신 수진은 진실로 황궁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죽어 마땅합니다. 인덕 3년 4월 일, 태사 신 살수진 계를 올립니다.

臣守眞啓. 稟性愚蒙, 無所開悟, 伏奉令旨. 使祇承謹誠, 預避灾孽, 一人有慶, 百姓又安. 是以, 臣廣集諸家天文, 披攬圖讖. … 伏惟大王殿下, 惠澤光於日月, 仁化浹於乾坤, 握金鏡而垂衣, 運玉衡而負屨. 臣幸逢昌運, 謬承末職, 輒率愚管, 輕爲撰著, 臣所集撰, 少或可觀, 雖死之日, 猶生之年. 不任惶懼之至, 謹奉啓以聞. 臣守眞誠惶誠恐, 頓首頓首, 死罪死罪. 麟德三年四月 日, 大史臣薩守眞上啓. (『서상지』 권1, 啓, 315-316쪽)¹²⁾

11) 밑에 나오는 대왕전하를 가리킨다.

12) 이하 ‘『서상지』’란 薄樹人 편, 『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天文卷』 4권 (鄭州: 河南教育出版社

권1의 맨 앞에서 서문 역할을 하는 이 글은 서두의 ‘臣某啓’ 서식을 통해 황태자에게 올리는 계(啓)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성 연월 ‘麟德三年四月’이 문제이다. ‘인덕(麟德)’이 664년부터 사용된 연호이므로 이는 666년 4월에 해당하지만, 당나라 고종은 666년 1월 태산에서 봉선제를 치르고 새 연호 ‘건봉(乾封)’을 제정하였으니 ‘乾封元年四月’로 써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수진은 연호 개정을 3개월이 넘도록 모른, 당나라 사정에 어두운 주변국 사람이라는 것이 첫 번째 근거이다.¹³⁾ 그리고 『구당서』 「경적지」나 『신당서』 「예문지」 등에 대왕전하라는 왕급 인물의 지시(令旨)로 저술된 이 책이 실리지 않았으니 대왕전하는 당나라 종실과 거리가 먼 사람이고 살수진도 당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 근거이다.¹⁴⁾

또, 권20에 실린 취리산 회맹문은(그림 4 참조) 665년 8월 웅진 취리산(就利山)에서 신라 문무왕과 백제 부여음이 당나라 리우 런위엔(劉仁願)의 주선으로 백마의 피를 마시면서 평화를 맹세한 문서인데¹⁵⁾, 중국 고전과 고사 일색인 책에 이 문서가 포함된 것도 의미심장하지만 살수진이 신라인이 아니었다면 취리산에 대한 설명을 아래처럼 세주에서 자세히 붙이기 어려웠으리라는 것이 세 번째 근거이다.¹⁶⁾

당나라 인덕 2년 가을 8월에 칙사 리우 런위엔, 신라왕과 백제의 음이 취리산[백제 땅이다. 맹약으로 인해 난산(亂山)을 취리산이라 했는데, 지마현(只馬縣)에 있다]에서 맹약하였다.

大唐 麟德二年秋八月, 勅使劉仁願、新羅王及百濟 隆盟于就利山[山, 百濟地也. 由盟改亂山爲就利山, 在只馬縣也]. (『서상지』 권20, 盟誓, 447쪽 1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시기 신라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근거로 들었다.

版社, 1995)에 영인된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소장본 『천지서상지』를 지칭하며, 쪽수도 거기에 나오는 쪽수를 말한다.

13) 권덕영, 앞 논문, 389-391쪽.

14) 같은 논문, 391-392쪽.

15) 『구당서』 권199上, 東夷傳·百濟; 『삼국사기』 권6, 문무왕 5년 8월.

16) 권덕영, 앞 논문, 392-393쪽.

10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5권 제1호 (2013)

① (674년) 왕이 영묘사 앞길에 행차하여 군사를 사열하고 아찬 설수진(薛秀眞)의 육진병법(六陣兵法)을 관람하였다.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4년 9월)

② 신라 옛 기록에 이런 말이 있다. “문장은 강수(强首), 제문(帝文), 수진(守眞), 양도(良圖), 풍훈(風訓), 골번(骨番)이다.” 제문 이하는 그 사실이 없어졌으므로 전기를 지을 수 없다. (『삼국사기』 권46, 강수열전)

즉, 신라인의 성 ‘薛’은 ‘薩’로도 쓰였으므로¹⁷⁾ ①의 설수진(薛秀眞)과 ②의 수진(守眞)은 살수진(薩守眞)과 같은 사람이며, 그가 당나라 유학 중 개인적인 관심으로 『서상지』를 편찬하다가 귀국해 마무리했으며, 태사 관직은 신라에 있었을 수도 있고 당에서 받은 관직을 신라에 들어와서 습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¹⁸⁾

이에 대해 김일권은 전면적인 반론을 펼쳤는데, 먼저 ‘인덕 3년’ 문제와 관련하여 ‘건봉’으로 개원한 사실이 『서상지』 권20에 ‘更爲乾封元年也’로 나와 있음(그림 3 참조)을 확인하였다.

당나라 인덕 3년 병인년 정월 무진 초하룻날에 황제가 환구단에서 의례를 준비하면서 장작을 태워 하늘에 고했다. 2일 지에병(芥兵)¹⁹⁾ 정상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3일 서소우(社首)의 산에 내려와 땅에 제사를 지내고, 건봉 원년으로 개정하였다.

大唐 麟德三年歲次景寅正月戊辰朔，皇帝以元日，備禮於圜丘之壇，焚柴，告天；二日，登封於芥兵之頂；三日，降禪於社首之山，更爲乾封元年也。 (『서상지』 권20, 封禪, 439쪽 2면)

즉, 살수진이 연호 개정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확한 이상 그가 당나라 사정에 어두운 주변국 사람이었다는 논지는 성립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⁰⁾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당나라 사람, 특히 태사 관직에 있는 자가 개원

17) 설총의 아들인 ‘薛仲業’을 『속일본기』에서 ‘薩仲業’이라 했고, 『삼국사기』 권47, 설계 두전의 ‘薛[一本作薩]闕頭’도 『역주 삼국사기』 1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에서는 고려본인 성암본을 따라 ‘薛[一本作薩]闕頭’로 교감했다. 권덕영, 앞 논문, 394쪽.

18) 권덕영, 앞 논문, 393-395쪽.

19) 『구당서』 권5, 인덕 3년조에는 ‘泰山’이다. ‘芥兵’은 또 다른 별칭일 수도 있고 태산의 별칭인 ‘泰岳’의 오기일 가능성도 있다.

사실을 알면서도 새 연호를 쓰지 않았다면 더욱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는 오히려 살수진이 당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또 원문의 ‘景寅’은 원래 ‘丙寅’인데 ‘丙’이 당나라 고조의 아버지 이름 ‘昺’과 음이 같아서 ‘景’을 대신 썼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²¹⁾

김일권은 또 『천문요록(天文要錄)』을 예로 들어 『서상지』가 중국 기록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²²⁾ 『천문요록』은 서문에 “大唐 麟德元年五月十七日, 河南左中三公郎將 臣李鳳奏上”이라고 적혀 있어 664년 리 평(李鳳)이 찬술하여 당나라 고종에게 바친 천문서로 볼 수 있는데, 『서상지』처럼 중국에는 전혀 기록이 없고 일본에만 잔본이 전한다. 이로써 중국에 기록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 서적이 아니라는 근거는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취리산 회맹문의 세주 역시 신라인이 아니라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²³⁾ 이는 태사라는 직책이 전통적으로 천문과 역법을 관장했던 태사국(太史局)의 장관인 태사령을 지칭했지만 662년에서 670년 사이에는 난대(蘭臺)의 장관을 지칭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난대는 662년 비서성(秘書省)을 개칭한 기관인데 그 장관의 명칭도 비서감(秘書監)에서 태사로 바뀌었고, 산하의 태사국은 비각국(秘閣局)으로 개칭되면서 태사령이 비각랑중(秘閣郎中)으로 개칭되었다고 한다.²⁴⁾ 그런데 역시 난대의 산하에 있던 저작국(著作局)²⁵⁾은 각종 비지(碑志)와 축문(祝文), 제문(祭文) 등을 관장하던 곳이므로 취리산 회맹문도 이곳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태사 살수진이 취리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일단 취리산 회맹문은 리우 런궈이(劉仁軌)가 지었다고 나오므로²⁶⁾ 저작국에서 지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나라에서 대규모 출병을 해서 백제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회맹 자체도 당나라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정황상 회맹 장

20) 김일권, 앞 논문, 230-232쪽.

21) 같은 논문, 230-231쪽.

22) 같은 논문, 249-251쪽.

23) 같은 논문, 233-237쪽.

24) 같은 논문, 242-244쪽.

25) 저작국 역시 사문국(司文局)으로, 장관인 저작랑(著作郎)은 사문랑중(司文郎中)으로 개칭되었다.

26) 『삼국사기』 권6, 문무왕 5년 8월.

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당나라 문헌에 남았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논증 과정에서 662년에서 670년 사이 짧은 기간 동안 태사라는 관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태사령이 아니라 그보다 상급인 비서감을 지칭했음을 고증했는데 이는 살수진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기여라 할 수 있다.

또 이름의 한국어 발음이 우연히 같지만 『서상지』 편찬자 살수진은 천문가(天文家)이고 육진병법²⁷⁾을 가르친 설수진은 병법가(兵法家)이므로 등치될 수 없다고 했는데²⁸⁾, 이 주장은 천문가와 병법가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면이 있다. 예컨대 『천문요록』을 지은 리 평은 하남좌중삼공랑장(河南左中三公郎將)이란 무관이었고, 후술하겠지만 신라의 사천대박사(司天大博士) 김암(金巖)도 육진병법을 가르쳤다. 따라서 천문과 병법이 무관하다는 불확실한 전제로 살수진과 설수진이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라에서 확인되지 않는 관직인 태사를 당나라 관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점은²⁹⁾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미즈구치 모토키는 ‘인덕 3년’에 대해 권덕영의 주장에 동의했지만, 취리산 세주는 판단을 유보했고,³⁰⁾ 『천문요록』을 예로 들어 『서상지』가 중국 기록에 안 보여도 당나라의 서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³¹⁾ 김일권과 같은 견해이다. 그리고 살수진이 신라인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 두 가지를 새로 들었으므로, 그 각각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 미즈구치는 계의 말미에 주목했다. 『문원영화(文苑英華)』에 의하면 황태자에게 올리는 글인 계는 ‘臣某啓’나 ‘某啓’로 시작하고 말미에서 ‘謹啓’, ‘惶懼之至’, ‘兢惶之至’, ‘下情無任’, ‘生死幸甚’ 등으로 문장을 마치는데, 특히 ‘臣某啓’로 시작하는 경우는 반드시 ‘謹啓’로 끝난다고 한다. 그런데 『서상지』의 계는 ‘臣某啓’ 형식인 ‘臣守眞啓’로 시작했지만 ‘謹啓’로 끝나지 않고 ‘誠惶誠恐, 頓首頓首, 死罪死罪’로 끝나며, 바로 앞의 ‘不任惶懼之至, 謹奉啓以聞’이 ‘謹啓’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거기서 끝나지 않

27) 육진병법(六陣兵法)은 육화병법(六花兵法)이라고도 하며 당나라의 리우 정(李靖)이 만들었다. 『역주 삼국사기』 3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36쪽.

28) 김일권, 앞 논문, 237-238쪽.

29) 같은 논문, 244-245쪽.

30) 水口幹記, 앞 책, 194-195쪽.

31) 같은 책, 194쪽.

아 계로서는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더욱이 ‘誠惶誠恐’, 頓首頓首, 死罪死罪’는 황제에게 올리는 표(表)에 쓰이는 문구이므로³²⁾ 이러한 격식의 혼란은 당나라 주변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국적 예(禮)를 모르거나 거기에 꽤 넘치 않는 양상이라 했다.³³⁾ 실제로 신라에서는 중고기에 왕이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면서 연호를 제정하거나 ‘짐(朕)’을 자칭했고 중대에 들어와서도 고구려국왕 안승이 문무왕에게 표를 올렸다가 문무왕과 성덕왕, 문성왕이 ‘敎’가 아닌 ‘詔’를 내리기도 하는 등³⁴⁾ 중국적 예와 조응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살수진의 계는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미즈구치는 권7에 나오는 별자리 이름 ‘天淵’과 ‘虎賁’이 피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淵’은 당나라 고조, ‘虎’는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므로 『진서』와 『수서』에는 각각 ‘天池’와 ‘武賁’으로 고쳤는데 『서상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태종의 이름 글자 ‘民’도 그대로 나오므로, 민간에서 몰래 저술되었다면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책이라면 당나라 사람의 편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³⁵⁾ 실제로 『서상지』에는 고종의 이름 ‘治’와 그 선대 이름이 그대로 쓰였을 뿐 아니라³⁶⁾ 심지어 ‘世’와 ‘民’은 계에도 쓰였는데³⁷⁾, 당 초기에는 태종 ‘李世民’ 같은 두 자 이름은 글자마다 피휘를 하지 않아서 ‘民部’라는 관청도 있었고 ‘李世勣’, ‘虞世南’이라는 신하의 이름도 유지되었지만, 649년 고종 즉위 이후에는 ‘民部’가 ‘戶部’로, ‘李世勣’이 ‘李勣’이 되는 등 피휘가 엄격히 행해져서 음이 같은 글자를 피하는 혐휘(嫌諱)까지 할 정도였다.³⁸⁾ 그러므로 ‘丙’을 ‘景’으로 혐휘한 앞의 봉선제 기사 수록을 보더라도 피휘 관행을 알았음이 명백한 살수진이 피휘를 하지 않았으니 그가 당나라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2) “表者，上言‘臣某言’，下言‘臣某誠惶誠恐，頓首頓首，死罪死罪’” 『唐六典』, 권8.

33) 水口幹記, 앞 책, 198-199쪽.

34) 양정석, “新羅 公式令의 王命文書樣式 考察”, 『한국고대사연구』 15권 (1999), 151-152쪽, 성덕대왕신종 명문.

35) 水口幹記, 앞 책, 199-200쪽.

36) 『서상지』 권1만 보더라도 다음 예들이 있다. ‘丙’(『서상지』 권1, 319쪽 2면 9행; 3면 8행); ‘虎’(317쪽 2면 6행; 323쪽 1면 2행); ‘世’(315쪽 4면 2행; 6행); ‘民’(315쪽 2면 6행; 316쪽 3면 2행); ‘治’(316쪽 2면 6행; 8행).

37) “天聰明自我民聰明” 『서상지』 권1, 315쪽 2면; “皇世『三墳』、帝代『五典』，謂之經也”，“還昭晰於聖世.” 『서상지』 권1, 315쪽 4면.

38) 王新華, 『避諱研究』 (濟南: 齊魯書社, 2007), 267-270쪽.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당시의 피휘 실태를 제한적이거나 조사하면 표 2와 같은데, 공식 역사서에서만 피휘가 이루어진 경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진서』와 『수서』의 「천문지」에서는 피휘를 한 반면 같은 저자(李淳風)가 지은 『율사집』에서는 피휘를 하지 않았다. 함부로 고치기 어려운 공식 역사서가 아닌 경우 피휘자가 나중에 복구되었기 때문일까? 그러나 그렇다면 『서상지』에서 ‘景寅’은 왜 ‘丙寅’으로 복구되지 않았을까? 이 피휘 문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헌	‘虎’	‘淵’	‘民’	‘治’
天文大象賦 (隋末唐初)	虎賁(108)	天淵(103)	(없음)	(없음)
星占 (唐初)	虎賁(610)	天淵(610)	米貴民飢(605) 民多死(605)	(피휘 전)
乙巳占 (645년)	白虎通(466) 楚王虎(482)	天淵(542) 公孫淵(535)	逆生民之禍應 也(456)	(피휘 전)
晉書 (648년)	兩足獸(76) 武賁(293)	天池(305)	民多疾(297) 星離民流(300)	(피휘 전)
隋書 (656년)	武賁(534) 白武通(204)	天池(550)	生人之名(6) 民部尚書(13)	河南贊務裴弘 拒之(84)
南史 (659년)	武賁(1667)	天泉池(31)	諸葛長人(4) 人鮮勞役(127)	天下便足 (664)
北史 (659년)	武賁(710)	穿神泉池(93) 侯深率眾(165)	緣路之丁(113) 大人蠹害(771)	帝親 ~~治~~ 兵於河南 (14) 叉子 ~~雅~~ 舒(599)
天文要錄 (664년)	虎賁(306)	三淵(228) 天淵(310)	民人多飢(36)	女后治政(42)
天地瑞祥志 (666년)	虎賁(329)	天淵(333)	我民聰明(315)	隨五行而治政 之事(316)
開元占經 (718-724년)	虎賁(628)	天淵(631) 三淵(575)	万民流亡(65)	聚邑治城而失 衆心(65)
步天歌(唐)	虎賁(129)	天淵(119)	(없음)	(없음)

표 2. 7세기 중국의 피휘 현황. 피휘나 헛휘 때문에 대신 쓰인 글자는 위에 강조점을 찍었고 삭제된 글자는 취소선을 그었다. 괄호 안 숫자는 中華書局 발행 표점본과 『中國科學技術典籍通纂·天文卷』의 쪽수를 나타낸다.

한편 당나라 태사가 공문서에 새 연호를 쓰지 않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신라에서는 연호 개정이 알려진 후 문서로 공지하는 과정에서 새 연호 적용이 늦춰질 수 있다고 자오 이와 진 청위가 최근에 지적했는데³⁹⁾ 이는 정곡을 찔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연호 적용이 늦어진 예로 든 ‘麟德三年丙寅三月十日’⁴⁰⁾은 연호 개정 후 두 달 남짓 지난 시점인데 당나라 수도 창안(長安)에서 경주까지 석 달쯤 걸린다는⁴¹⁾ 점을 감안하면 공지 과정 때문이 아니라 연호 개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인덕 연호를 그대로 쓴 결과로 보아야 한다. 석 달이 지난 ‘麟德三年四月’과는 다른 경우인 것이다.

또 살수진의 계에서 미즈구치가 지적한 ‘誠惶誠恐, 頓首頓首, 死罪死罪’뿐 아니라 ‘惠澤光於日月’, ‘仁化浹於乾坤’, ‘握金鏡而垂衣’, ‘運玉衡而負扈’ 등도 표에 어울리는 표현으로서 당나라 황태자에게는 쓰일 수 없지만 신라인이 본국의 왕을 존중해서 쓸 수는 있었다고 했는데⁴²⁾, 타당한 지적이다. 실제로 필자가 확인한 결과 동일한 표현인 ‘天子負斧扆, 南鄉而立’⁴³⁾, ‘皇帝升, 立於斧扆之前’⁴⁴⁾, ‘皇帝垂衣負扆, 辨方正位’⁴⁵⁾, ‘握金鏡以御寰瀛’⁴⁶⁾, ‘皇帝應圖負扆, 握鏡開基’⁴⁷⁾, ‘握天鏡而授河圖, 執玉衡而運乾象’⁴⁸⁾ 등이 황제에 대해 쓰였고, 특히 황태자가 황제에 대해 쓰기도 했으므로 ‘대왕전하’가 당나라 황태자를 지칭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대왕전하’는 필경 신라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⁹⁾

이런 정황 아래에서 자오 이와 진 청위가 ‘薩’은 ‘薛’에서 파생된 글자로서 당시 ‘菩薩’을 ‘菩薛’ 등으로 썼음을 지적하면서 ‘薩守眞’이 곧 ‘薛秀眞’일 수 있다고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하지만 태사 직은

39) 趙益·金程宇, 앞 논문, 124-125쪽.

40) “麟德三年丙寅三月十日, 有人家婢名吉伊, 一乳生三子.” 『삼국유사』 권2, 문무왕 법민.

41) 권덕영, 『고대한중외교사』 (일조각, 1997), 220쪽, 같은 책, 225쪽.

42) 趙益·金程宇, 앞 논문, 126쪽.

43) 『禮記』 권6, 明堂位.

44) 『北史』 권23, 849쪽.

45) 『廣弘明集』 권23, 梁簡文帝法寶聯璧序.

46) 『廣成集』 권4, 普康諸公主為皇帝修金錄齋詞.

47) 『廣成集』 권4, 皇太子為皇帝修金錄齋詞.

48) 『藝文類聚』 권38, 陳徐陵皇太子臨辟雍頌.

49) 비록 후대이지만 896년 최치원이 작성한 숭복사비(崇福寺碑) 비문에서 진성여왕을 ‘大王殿下’로 지칭한 예가 보이기도 한다.

50) 趙益·金程宇, 앞 논문, 127쪽.

‘시중(侍中)’이나 ‘낭중(郎中)’처럼 당나라 관직명을 딴 신라 관직이고⁵¹⁾ 『서상지』에 인용된 중국 서적들도 당시 신라에서 다 구할 수 있었다고 전제 한 후, 살수진이 신라에서 『서상지』를 편찬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⁵²⁾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로 보인다. 다음을 보자.(그림 2 참조)

신 수진은 표를 올려 말씀드렸습니다. “옛 사람의 절조를 느끼고 성스러운 임금의 은혜 갚을 일을 생각합니다. 천고를 더듬어 전적을 펼칠 때마다 성스러운 황제와 지혜로운 왕들은 하늘의 뜻을 따르고 꾸짖음을 삼가 받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

臣守眞表曰: “感古人之節, 思酬□聖主之恩. 緬尋千古, 每披典籍, 聖帝明王莫不欽若昊天, 祇承譴誡也. 夫帝王者配德天地, 叶契陰陽, 發號施令, 動開⁵³⁾幽顯, 休咎之徵, 隨感而作, 故『書』曰: ‘惠迪吉, 從逆凶, 唯影響也.’” (『서상지』 권1, 明災消福至, 319쪽 4면)

위에서 살수진은 계뿐 아니라 표도 올린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臣’은 대왕전하에 대한 1인칭이므로 표를 올리는 대상이 대왕전하라면 표의 서식인 ‘臣守眞言’으로 써야 하지만 ‘臣守眞表曰’로 써서 3인칭인 누군가에게 표를 올린 사실을 2인칭인 대왕전하에게 말하고 있으니, 살수진이 당나라 고종에게 표를 올린 사실을 문무왕에게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⁵⁴⁾ 즉 살수진이 신라에만 머물렀다고 보기 힘든 이상, 당나라에서 『서상지』를 편찬하고 태사 관직도 거기서 받았다고 보아야 자연스럽다.

이상을 종합하면 취리산의 세주, 중국 기록에 『서상지』가 안 보이는 점, 피휘가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은 살수진이 신라인이라는 근거로서 취약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태사도 당나라 관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인덕 3년’ 문제와 『삼국사기』의 설수진, 표에 어울리는 표현들이 계에 나오는 점 등 세 가지는 여전히 뒤집기 어려운 근거라고 생각한다.

51) 같은 논문, 126쪽.

52) 같은 논문, 127쪽. 같은 논문, 125쪽에서는 설수진이 신라에서 『서상지』를 완성하고 막판에 봉선제 기사를 입수해 책에 추가했다고 보았다.

53) ‘開’는 ‘關’의 잘못이다.

54) 趙益·金程宇, 앞 논문, 126쪽에서는 ‘臣守眞表曰’에서 ‘表’가 오류라고 하여 실제로는 ‘臣守眞曰’로 보고 있는 듯하지만, ‘臣’ 때문에 자주 나오는 ‘守曰’, ‘守謂’ 등과 같은 주석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역시 ‘表’가 있어야 자연스럽다.

3. 새로운 논점의 제시

1) 이두 표기

한문은 주변국에 수용되면서 변용이 되었는데, 고구려에서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하거나 한국어 문법 형태를 나타내는 토(吐)를 다는 이두문의 형태가 먼저 나타났고, 신라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늦어도 6세기에는 금석문에서 이두가 확인된다. 따라서 이두로 추정되는 『서상지』의 다음 표기들은 그 편찬자가 신라인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① 처격 조사 ‘中’

‘中’은 주로 시간명사 뒤에서 ‘-안에’라는 뜻을 지닌 실사로 쓰여, 예컨대 ‘月 안에’를 뜻하는 ‘月中’은 ‘월에’를 뜻하는 ‘月Ø’과 의미상 차이가 있다. 그런데 ‘中’이 ‘-안에’가 아닌 ‘-에’라는 뜻을 지닌 허사로 쓰인 예들이 금석문 등에서 발견된다.⁵⁵⁾

① 5월에 고구려 대왕의 할아버지 왕의 영으로 신라 매금….

五月中, 高麗太王祖王令□新羅寐錦… (중원고구려비, 5세기)

② 병술년 2월에 한성 아래 후절소형 문달이 감독했다. 여기에서 서북으로 걸쳤다.

丙戌二月中, 漢城下後口小兄文達節. 自此西北涉之. (평양성벽각문, 566년)

③ 신미년 11월에 성을 쌓았다.

辛未年十一月中, 作城也. (명활산성작성비, 551년)

④ 경에 들어서 쓸 것으로 백불유 종이 한두 개를 매입하다.

經中入用思, 買白不雖紙一二个. (월성해자 149호 목간, 7세기 후반)

⑤ 님나무 뿌리에 향수를 뿌려가며 길러서 연후에 껍질을 벗겨내고….

楮根中香水散尔生長令內弥, 然後中若楮皮脫… (화엄경사경조성기, 755년)

55) 김영옥, “古代國語의 處所格 助詞에 對하여—‘中’을 중심으로”, 『국어학』 57집 (2010), 131-151쪽을 주로 참조하였다.

이제 『서상지』에서 ‘中’이 이러한 허사 용법으로 쓰인 예문들을 찾아 중국 문헌의 문장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구주(九州)는 구풍(勾風)이라고도 하는데, 별 아홉 개가 삼문(參門)에 있다. 항상 11월에 갖추어진다. 별 하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가 흉하고, 별 셋 이상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천하에 병난이 일어난다.

『黃帝書』曰: “九州, 一名勾風. 凡九星在參門. 常以十一月中具之. 一星不具, 其國凶; 三星以上不具, 天下亂, 兵起.” (『서상지』 권7, 九州口, 336쪽 2-3면)

陳卓曰: “九州, 一名勾風, 在三門. 常以十一月候. 一星不見, 其國有兵喪; 三星以上不見, 天下亂, 兵起.” (『천문요록』 권49, 299쪽 1면)

『黃帝占』曰: “九州殊口, 一名勾風. 凡九星在三間. 常以十月十一月候之. 若一星不具, 其國凶; 三星已上不具, 兵起, 天下亂.” (『개원점경』 권70, 625쪽 3면)

② 『대적점』에서 말했다. “정월 평단⁵⁶⁾에 남풍이 먼저 이르면 5월에 가물다. 식시에 이르면 3월, 일영에 이르면 6월, 포시에 이르면 7월, 일입에 이르면 8월, 황혼에 이르면 9월, 인경에 이르면 10월, 야반에 이르면 11월에 가물고, 계명에서 평단에 이르면 그 해는 내내 매우 가물다”

『對敵占』曰: “正月平旦, 南風先至, 五月旱; 食時, 三月旱; 日映, 六月中旱; 晡時, 七月旱; 日入, 八月⁵⁷⁾旱; 黃昏, 九月旱; 人定, 十月旱; 夜半, 十一月旱; 鷄鳴至平旦, 其年大旱.” (『서상지』 권12, 正月朔旦候風, 342쪽 4면)

③ 양나라 대동 12년 4월에 동태사(同泰寺)에 불이 났는데 3년 후에 무제가 죽었다. 당나라 무덕 7년 7월에 선정사(禪定寺)에 불이 났는데, 3년 후에 진왕(秦王)이 일을 일으켰다.

梁 大同十二年四月中, 同泰⁵⁸⁾寺災. 後三年武帝崩. 唐 武德七年七月中, 禪定寺災. 後三年泰⁵⁹⁾王立事. (『서상지』 권16, 火, 376쪽 3면)

三年七月, 崇華殿災. (『진서』 권13, 362쪽)

魏 明帝 太和五年五月, 清商殿災. (『진서』 권27, 803쪽)

56) 중국 한나라에서는 하루를 오전 3시부터 12등분하여 각각을 평旦, 日出, 食時, 禺中, 日中, 日映, 晡時, 日入, 黃錯, 人定, 半夜, 雞鳴으로 불렀다.

57) ‘用’은 ‘月’의 잘못이다.

58) ‘秦’은 ‘泰’의 잘못이다.

59) ‘泰’는 ‘秦’의 잘못이다.

二月, 永寧寺九層浮屠災. (『북사』 권6, 219쪽)

④ 바람이 건(乾)에서 불어오면 서리가 만물을 죽이고 5월에 곡식이 귀해진다.
風從乾來, 霜煞萬物, 五月中粟貴. (『서상지』 권12, 八風, 347쪽 2면)

①	②	③	④
九州 一名勾風 在三門常以十一月候	一名勾風 凡九星在參門常以十一月中具之 對敵占曰正月平旦南風先至五月 旱食時三月旱日映六月中旱晡時七月旱日入八 用旱黃昏九月旱人定十月旱夜半十一月旱雞鳴 至平旦其年大旱	年四月中同泰寺災後三年武帝崩唐武德七年七 月中禪定寺災後三年泰王立事 梁大同十二	萬物五月中粟貴 風從乾來霜煞

표 3. 처격 조사로 추정되는 『서상지』의 ‘中’들. ②, ③의 ‘中’이 처격 조사임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①, ④는 다소 불분명하다. ①은 『천문요록』에 유사한 문장이 있어 비교가 가능하다.

②에서는 같은 언어 환경에서 ‘月Ø’이 7개 있으므로 단 1개 있는 ‘月中’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밖에 없고,⁶⁰⁾ ③에는 ‘시간명사+中+건물명+災’ 형식이 두 번 나오는데, 같은 시대에 편찬된 『진서』나 『북사』 등에서는 같은 언어 환경에서 ‘中’이 없으므로 ‘中’을 허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확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①, ④도 이두문일 가능성이 있다. ①의 ‘十一月中’은 ‘11월 안

60) 같은 쪽 2면 마지막 줄부터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六月中’이 아니고 ‘六月’이므로 ‘中’이 허사일 가능성은 더 커진다.

에’로도 ‘11월에’로도 풀이할 수 있지만 유사한 문장에서 후자의 의미인 ‘十一月〇’로 쓰인 예가 있으며, ④도 “5월 안에 곡식이 귀해진다”뿐 아니라 “5월에 곡식이 귀해진다”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아래는 ‘中’이 실사로 쓰인 예이다.

『남방초물상』에서 말하였다. “머리가 짧고 몸이 가느다란 누런 물고기는 9월 안에 가을바람 때문에 변하여 메추라기가 된다.”

『南方草物狀』曰：“短頭細黃魚，以九月中因秋風而變成鶉。”(『서상지』 권18, 鶉, 405쪽 3면)

『南方草物狀』曰：“短頭細黃魚，以九月中因秋風而變成鶉。上圃吏民捕取，鹽炙食，滋味肥美。出交趾、合浦郡。”(『태평어람』 권924, 羽族部11)

② 평서문 종결어미 ‘-지’

‘-다’로 볼 수 있는 ‘-지’ 용례 몇 개를 금석문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⁶¹⁾

① 매입한 사람은 법으로 묘를 지키게 한다.

買者制令守墓之。(광개토왕릉비, 414년)

② 의복을 와서 받으라고 명하고 군영에 (와서) 무릎을 꿇게 했다.

衣服來受教跪營之。(중원고구려비, 5세기)

③ 함께 노닐 벗은 누이 여덕광묘, 어사랑, 안랑님이다.

并遊友妹麗德光妙、於史郎、安郎主之。(울주천전리서석 原銘, 525년)

④ 만약 법으로 지은 후 3년에 무너지면 죄 주실 일로 삼아 들으시게 하여 맹서하는 일이다.

如法以作後三年崩破者，罪教事爲聞教令誓事之。(남산신성비, 591년)

⑤ 첩을 내리시어 지시하셨다.

牒垂賜教在之。(월성해자 149호 목간, 7세기 후반)

61) 정재영, “한국 고대 문자자료에 나타나는 종결어미 ‘-지’”, 동북아역사재단 편,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태학사, 2011)을 주로 참조하였다.

①부터 ⑤의 ‘之’는 명사나 자동사 뒤에서 지시대명사가 아닌 종결어미로 쓰였는데 이런 용법의 ‘之’를 『서상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① 별 하나가 북하(北河) 서북쪽에 있다. 정(井)에서 13도 들어와 있고 거극도는 50도, 황도내도는 12도이다.⁶²⁾

石氏曰: “一星在北河西北. 入井十三度, 去極五十度, 在黃道內十二度之.” (『서상지』 권7, 積水, 325쪽 1-2면)

石氏曰: “積水一星在北河西星北. 入井十三度, 去極五十五度, 在黃道內十二度太.” (『개원점경』 권65, 578쪽 3면)

② 『진서』에서 말했다. “천준(天樽)은 죽 담는 일을 주관하여 가난하고 주린 자에게 지급한다.”

『晉志』曰: “天樽主盛饘粥以給貧餒之.” (『서상지』 권7, 天樽, 325쪽 3면)

五諸侯南三星曰天樽, 主盛饘粥以給貧餒. (『진서』 권11, 298쪽)

③ 간떠(甘德)가 말했다. “별 넷이 현원(軒轅) 끝 서쪽에 있다[토관(土官)이다]”

甘德曰: “四星在軒轅尾西[土官之].” (『천지서상지』 권7, 權⁶³⁾, 325쪽 3면)

巫咸曰: “權星, 土官也.” (『개원점경』 권69, 618쪽 3면)

④ 『진서』에서 말했다. “천지(天池)는 삼지(三池)나 대해(大海)라고도 하는데, 발 두둑에 물 대는 일을 주관한다.”

『晉志』曰: “天池, 一曰三池, 一曰大海, 主灌溉田疇事之.” (『서상지』 권7, 天淵, 333쪽 1면)

九坎間十星曰天池, 一曰三池, 一曰天海, 主灌溉田疇事. (『진서』 권11, 305쪽)

⑤ 북쪽 오랑개 정령과 흉노를 관장한다.

主北夷丁零、匈奴之. (『서상지』 권7, 天壘, 333쪽 3면)

主北夷丁零、匈奴. (『진서』 권11, 305쪽)

⑥ 『진서』에서 말했다. “능과 종묘의 자리이다.”

『晉志』曰: “國⁶⁴⁾陵寢廟之所之.” (『서상지』 권7, 虛梁, 333쪽 4면)

其南四星曰虛梁, 園陵寢廟之所也. (『진서』 권11, 305쪽)

62) 황도내외도(黃道內外度) 값이 『서상지』에서는 내(內) 12도, 『개원점경』에서는 12와 3/4도(‘太’는 분수 ‘3/4’의 표기)로 약간 다르다.

63) ‘權’은 ‘燿’의 잘못이다.

64) ‘國’은 ‘園’의 잘못이다.

⑦ 『황제집』에서 말했다. “진성이 (천창을) 지키면 홍수가 난다.”

『黃帝占』曰: “辰星守, 爲大水之.” (『서상지』 권7, 天倉, 335쪽 3면)

『黃帝』曰: “辰星守天倉, 大水.” (『개원점경』 권59, 512쪽 3면)

⑧ 리우 뼈아오(劉表)가 말했다. “형혹이 지키면 가물어진다.”

劉表曰: “熒惑守, 旱之.” (『서상지』 권7, 稷, 338쪽 4면)

石氏曰: “熒惑守填星, 旱.” (『개원점경』 권21, 227쪽 4면)

⑨ 시꾸(師古)가 말했다. “…옷은 귀천을 밝히고 패물은 속마음을 나타낸다.”

師古曰: “…衣以所明貴賤, 佩所以表中心之.” (『서상지』 권17, 衣服, 385쪽 2면)

師古曰: “…衣所以明貴賤, 佩所以表中心.” (『한서』 권27中之上, 1365쪽)

⑩ 시꾸(師古)가 말했다. “한이(罕夷)는 진(晉)나라 대부인데 그 때 백군경(百軍卿)이 되었다. 태자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다.”

師古曰: “罕夷, 晉大夫, 時爲百軍卿也. 有心, 害太子之心之.” (『서상지』 권17, 衣服, 385쪽 2면)

師古曰: “罕夷, 晉大夫, 時爲下軍卿也. 有心, 害太子之心也.” (『한서』 권27中之上, 1366쪽)

⑪ 시꾸(師古)가 말했다. “하오치(鎬池) 못은 쿤밍치(昆明池) 못 북쪽에 있다. 지지양(直江) 강의 신이 하오치 신에게 시(始) 황제가 죽는다고 했다.”

師古曰: “鎬池在昆明池北. 宜⁶⁵江神告鎬池之神之, 始皇將死取⁶⁶之也之.” (『서상지』 권17, 玉, 389쪽 1면)

師古曰: “鎬池在昆明池北. 此直江神告鎬池之神, 云始皇將死耳, 無豫於武王也. 張說失矣.” (『한서』 권27中之上, 1400쪽)

⑫ 간빠오(干寶)가 말했다. “범은 금(金)의 정기이고 난양(南陽)은 화(火)이다. (금이) 화에 들어가 모습을 잃었으니 왕실에 난이 있을 요상함이다.”

干寶曰: “虎, 金精; 南陽, 火也. 入火失形, 王室亂之妖之.” (『서상지』 권19, 虎, 424쪽 3면)

虎者, 陰精而居乎陽, 金獸也. 南陽, 火名也. 金精入火, 而失其形, 王室亂之妖也. (『搜神記』 권7, 兩足虎)

65) ‘宜’는 ‘直’의 잘못이다.

66) ‘取’는 ‘耳’의 잘못이다.

②	④	⑥	⑦	⑨	⑩	⑫
主盛饘粥以給貧餒	主盛饘粥以給貧餒之 一曰天海主灌溉田疇事	晉志曰國陵寢廟之所也 園陵寢廟之所也	黃帝曰辰星守天倉大水 黃帝占曰辰星守為大水之	佩所以表中心	有心害太子之心也 有 _心 害太子之心也	入火失刑王室亂之妖也 入火而失其形王室亂之妖也

표 4. 종결어미로 추정되는 『서상지』의 ‘-지’들. 상단 숫자는 예문 번호이며 각각에 대해 중국 문헌(원쪽)과 『천지서상지』(오른쪽)를 비교했다. ②의 ‘饘’자에는 필사자가 ‘饘인가(饘餼)?’ 하고 의문을 적어놓았다.

⑬ 수중적(水中賊)이 공격해서 관문과 교량을 끊는다.[5일 안에 있다]

水中賊攻絕關梁[在五日内之]. (『서상지』 권12, 五音風, 345쪽 3면)

自戌來, 客自敗煞[卅日内也]. (『서상지』 권12, 五音風, 345쪽 2면)

從卯子來三日, 有賊及水[五日內也]. (『서상지』 권12, 五音風, 345쪽 3면)

⑭ 수각일(受角日)에 바람이 3일 동안 불어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꺾이고 모래와 돌이 날리면, 나라에 질병이 크게 돈다.

受角日發風三日, 發屋折木揚沙石, 國有大疫疾之. (『서상지』 권12, 五音風, 343쪽 2면)

⑮ 바람이 감(坎)에서 불어오면 겨울에 매우 춥고 북쪽 오랑캐가 중국을 침략한다.

風從坎來, 冬大寒, 北狄來侵中國之. (『서상지』 권12, 八風, 347쪽 2-3면)

⑯ 『설문』에서 말했다. “도도(騶騶)는 야생마 중 좋은 것이다.” 흉노의 말 이름이다.

『說文』曰: “騶騶者, 野馬之良也.” 匈奴馬名之. (『서상지』 권19, 馬, 418쪽 4면)

騶騶, 北野之良馬也. (『說文解字』 권10上, 馬部, 騶)

①에서 ⑬까지는 문장 비교를 통해 평서문 말미에서 ‘之’가 임의로 추가되었거나 ‘也’를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⑭, ⑮, ⑯ 문장 끝의 ‘之’ 역시 직접 비교할 용례는 찾지 못하였으나 임의로 추가된 종결어미로 볼 수 있다. 아래 ⑰은 다소 불확실한 예로서 ‘通’이 타동사이고 ‘之’가 지시대명사일 가능성이 있다.

⑰ 『상서대전』에서 말했다. “순(舜)이 위(禹)에게 선양하려는데, 그 때 팔풍이 조용히 지나갔다.”

『尚書大傳』曰：“舜將禪禹，于時八風修通之。”(『서상지』 권12, 八風, 346쪽 3면)

『尚書大傳』曰：“舜將禪禹，八風脩通。”(『예문유취』 권1, 天部上, 風)

③ 평서문 종결어미 ‘也之’

‘也之’ 역시 종결어미로 추정되는데, 현재로선 이두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역시 변칙적인 용법임은 분명하다. 이하 번역 없이 예를 몇 개 들었다.

① 『傳緯』曰：“彗出，主以妄誅，將叛臣反者也之。”(『서상지』 권7, 斧質, 335쪽 1면)

『春秋緯』曰：“彗出斧鑕，兵起，人主以妄誅，叛逆大臣反。”(『개원점경』 권90, 781쪽 1면)

② 師古曰：“於道上注而待此車馬也之。”(『서상지』 권17, 玉, 389쪽 1면)

師古曰：“於道上住而待此車馬。”(『한서』 권27中之上, 1400쪽)

③ 師古曰：“三卿謂郤犛、郤錡、郤至也。又殺公，事十六年也之。”(『서상지』 권17, 山, 390쪽 2면)

師古曰：“三卿謂郤犛、郤錡、郤至也。厲公殺之，而變晝、中行偃又弑厲公。事在成十七年。”(『한서』 권27下之上, 1456쪽)

④ 師古曰：“言漸解散也。絶⁶⁷⁾音式爾反也之。”(『서상지』 권17, 山, 390쪽 2면)

師古曰：“言漸解散也。弛音式爾反。”(『한서』 권27下之上, 1457쪽)

⑤ 師古曰：“復⁶⁸⁾非⁶⁹⁾之亂⁶⁹⁾也。今『易』崩字作明⁷⁰⁾也之。”(『서상지』 권17, 石, 391쪽 3면)

師古曰：“復卦之辭也。今『易』崩字作朋也。”(『한서』 권27中之上, 1400쪽)

67) ‘絶’는 ‘弛’의 잘못이다.

68) ‘非’는 ‘卦’의 잘못이다.

69) ‘亂’은 ‘辭’의 잘못이다.

70) ‘明’은 ‘朋’의 잘못이다.

④ 평서문 종결어미 ‘之也’

‘之也’도 이두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⁷¹⁾ 변칙적인 용법인데 『서상지』 전체에 걸쳐 매우 많이 산재하므로, 권7에 나오는 몇 개만 예시하였다.

① 『晋志』曰: “天之六府也[守謂: 六卿之也]...” (『서상지』 권7, 文昌, 330쪽 2면)

② 『晋書』曰: “主考囚情狀, 察詐僞之也.” (『서상지』 권7, 頓頑, 331쪽 3면)
頓頑二星, 在折威東南, 主考囚情狀, 察詐僞也. (『진서』 권11, 304쪽)

③ 『晋志』曰: “...有星守之, 虜入塞中, 兵起之也.” (『서상지』 권7, 北落師門, 334쪽 3면)
有星守之, 虜入塞中, 兵起. (『진서』 권11, 305쪽)

④ 甘德曰: “七星在屏南.[守曰: “圂, 廁之也.”] (『서상지』 권7, 天園, 335쪽 2면)
甘氏曰: “天濶七星在外屏南. 天濶者, 廁也.” (『개원점경』 권70, 624쪽 4면)

⑤ 郗萌曰: “廁所以視天下疾疫之也.” (『서상지』 권7, 廁, 337쪽 2면)
郗萌曰: “廁星主觀天下疾病.” (『개원점경』 권68, 607쪽 1면)

⑥ 『晋志』曰: “天子之祖廟之也.” (『서상지』 권7, 天廟, 339쪽 1면)
張南十四星曰天廟, 天子之祖廟也. (『진서』 권11, 307쪽)

평서문 말미의 ‘之也’는 중국 문헌에서도 자주 보이지만 그 경우 ‘之’는 타동사 다음에 나오는 대명사이며 거기에 어조사 ‘也’가 붙은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든 예들에서 ‘之’는 명사나 자동사 뒤에 별 의미 없이 추가되거나 ‘也’와 교체되었다. 특히 ①, ④에서 ‘之也’는 인용문뿐 아니라 ‘守謂’, ‘守曰’ 다음에 나오는 살수진 자신의 문장에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中’, ‘之’, ‘也之’, ‘之也’ 등은 7세기 중국에서 허사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상지』가 적어도 중국인의 저술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며, 이 중 ‘也之’, ‘之也’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中’과 ‘之’는 신라에서 허사로 쓰였으므로 『서상지』가 신라인의 저술이라는 근거가 된다.

71) ‘也之’의 ‘之’나 ‘之也’의 ‘也’를 필사본에서 행이 바뀌는 곳이나 단락의 맨 마지막에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추가한 글자로 볼 수는 없다. ‘也之’와 ‘之也’가 그런 위치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요소임은 분명해 보인다.

2) 신라 천문 기록과 『천지서상지』

여기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신라 천문 기록이 7세기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킴을 지적하고 이것이 『서상지』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질적인 변화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천문 현상이 일어난 천구상의 위치를 별자리로 나타냈는지를 지표로 삼았다. 일식, 월식, 성식 등과 달리 오성, 혜성, 신성, 유성 등은 출현 위치가 중요했는데 이를 방위로 대략적으로 기록한 ‘방위 기사’와 별자리로 구체적으로 기록한 ‘별자리 기사’에는 천문 지식의 질적인 차이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49(혁거세9) 春三月, 有星孛于王良.

전44(혁거세14) 夏四月, 有星孛于參.

전4(혁거세54) 春二月己酉, 星孛于河鼓.

23(남해20) 秋, 太白入太微.

54(유리31) 春二月, 星孛于紫宮.

59(탈해3) 六月, 有星孛于天船.

79(탈해23) 春二月, 彗星見東方, 又見北方, 二十日乃滅.

85(파사6) 夏四月, 客星入紫微.

143(일성10) 夏六月乙丑, 熒惑犯鎮星.

149(일성16) 秋八月, 有星孛于天市.

153(일성20) 冬十月, 彗星見東方, 又見東北方.

191(벌휴8) 秋九月, 蚩尤旗見于角、亢.

200(내해5) 秋七月, 太白晝見.

205(내해10) 秋七月, 太白犯月.

260(점해14) 秋七月, 星孛于東方, 二十五日而滅.

400(내물45) 秋八月, 星孛于東方.

467(자비10) 秋九月, 大星自北流東南.

484(소지6) 三月, 土星犯月.

631(진평53) 秋七月, 土星犯月.

647(진덕1) 八月, 彗星出於南方, 又衆星北流.

668(문무8) 夏四月, 彗星守天船.

670(문무10) 十二月, 土星入月.

672(문무12) 九月, 彗星七出北方.

676(문무16) 秋七月, 彗星出北河、積水之間, 長六七許步.

679(문무19) 夏四月, 熒惑守羽林.

679(문무19) 六月, 太白入月.

679(문무19) 六月, 流星犯參太星.

679(문무19) 秋八月, 太白入月.

681(신문1) 夏五月, 流星犯參太星.

682(신문2) 五月, 太白犯月.

683(신문3) 冬十月, 彗星出五車.

699(효소8) 春二月, 星孛于東.

700(효소9) 六月, 歲星入月.

신라 건국 이후 서기 700년까지 추린 오성, 혜성, 신성, 유성 기사에서 별자리 기사(굵은 글씨)들은 191년 이전과 668년 이후에 몰려있고 그 사이 거의 500년 가까이 ‘東方’, ‘東南’, ‘南方’ 등 방위로만 표시되었다. 그런데 신라 초기 별자리 기사들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있으므로⁷²⁾ 신라에서 믿을만한 별자리 기사는 668년에 처음 나온다고 할 수 있다.⁷³⁾ 이는 그 무렵 별자리 지식이란 어떤 문서의 형태로 신라에 존재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데, 바로 2년 전에 『서상지』가 대왕전하에게 제출되었고 『서상지』 권4, 5, 6, 7이 별자리에 관한 내용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기적 일치가 대왕전하가 문무왕, 살수진은 신라인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통일신라 말기인 932년에 『서상지』의 존재가 『고려사』에서 확인되므로 그 이전에도 신라에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266년 전인 666년부터 『서상지』가 신라에 존재해서 668년 기사로 이어진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4. 『천지서상지』의 전승

1) 『고려사』에 인용된 『천지서상지』

『서상지』 인용문은 『고려사』에서 3개, 『고려사절요』에서 1개가 알려졌는

72) 김일권, “元曉와 憬興의 『金光明經』 註疏에 나타난 신라의 天文 星宿 世界觀”, 『新羅文化』 17·18권 (2000), 178쪽.

73) 신라에서 별자리에 의한 위치 표시는 이전에도 일부 보인다. 예컨대 진평왕(579-632) 때 혜성이 심대성(心大星)을 범해서 용천사가 혜성가를 지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 권 5, 감통편, 融天師慧星歌에 나온다. 그러나 공식적인 천문 관측에서 상례화 된 시기는 「신라본기」 천문 기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데, 그 중 하나는 확실히 없다고 한다.⁷⁴⁾ 차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090년) 우박이 내리고 시서항(市西巷)의 사람과 말에 벼락이 떨어졌고, 또 건릉(乾陵)의 소나무와 도성 동북쪽 산 소나무에도 벼락이 떨어졌다. 태사가 아뢰기를 “『서상지』에 ‘우뢰와 번개가 사람을 죽이고 육축을 상하게 하며, 구렁과 수목을 깨뜨리는 것은 임금이 형벌로 사람을 죽이는데 정당한 도리를 벗어나 참소를 받아들여 억울하게 배어 죽었기 때문’인데, 바로잡지 아니하면 반드시 겁도(劫盜)가 일어날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잡는 방법은 참소하는 신하를 물리치고, 교만하고 사나운 자를 죄 주고, 문서를 자세히 살펴면 재앙이 소멸된다 하였습니다” 하니, 왕이 두려워하여 여러 농에 골고루 고하고 또 액막이로 빌기를 명하였다. (『고려사절요』 권6, 선종 7년 8월 신해일)

② (1116년) 국왕이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짐이 즉위한 이래 생명있는 것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길짐승과 날짐승,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덕을 베풀려왔다. 그런데 세월에 행하는 나례(儼禮)에서 닭 다섯 마리를 찢어 죽여 그것으로 역귀를 몰아내고 있으니, 짐은 이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다른 것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에 사천대(司天臺)에서 건의했다. “『서상지(瑞祥志)』에는 ‘12월에는 해당 관청에 지시해 크게 역귀를 몰아내고, 사방의 문에 희생을 매달아 음기를 쫓게 하며, 토우(土牛)로써 몰아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황토로 각각 길이 한 자, 높이 다섯 치 되는 소 네 필을 만들어 그것으로 닭을 잡는 것을 대신할 것을 청합니다.” 국왕이 그 제의를 따랐다. (『고려사』, 권16, 예종 11년 12월 기축일)

③ (1130년) 초경(初更)에 불빛 같은 기운이 북쪽에서 일어나 북두칠성의 괴(魁)를 덮었는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다가 3경(更)이 되어서야 사라졌다. 이에 일관이 이렇게 건의했다. “『천지서상지(天地瑞祥志)』에는, 붉은 기운이 나타나는 현상은 신하가 임금에게 반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엿드려 바라옵건대 덕을 닦아 변괴가 가시도록 하소서.” (『고려사』, 권53, 火行, 인종8년 8월)

③의 ‘『천지서상지』’ 인용문은 『서상지』 잔권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인용된 책 제목이 뚜렷하고, ②의 ‘『서상지』’ 인용문은 『서상지』 잔권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⁷⁵⁾ 출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①의 ‘『서상지』’

74) 김일권, “『天地瑞祥志』의 역사적 의미”, 255-259쪽; 석당학술원 편, 『국역 고려사』 15 (동아대학교, 2011), 125쪽.

75) 『서상지』 권20, 儼, 445쪽 3면.

인용문도 뤼(呂) 씨들의 참소를 천둥과 연관시킨 부분(권12, 異雨, 356쪽 1면)의 확대 해석이거나 실전된 권11 뇌전편(雷電篇)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 태조 15년(932) 기사에 나온 『상서지(祥瑞志)』가 『서상지』 인지는 확실치 않다.

④ (932년)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지(諭旨)를 내렸다. “근래에 서경의 보수를 끝내고 백성을 이주시킨 것은 땅의 기운을 빌어 삼한을 평정하고 장차 그곳에 도읍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 민가의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큰 바람이 불어 관아가 무너지니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가? ㉔ 옛날 진(晉)나라의 어떤 간신이 몰래 반역을 도모했는데 그 집의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 점을 쳐 보니, 누군가가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하늘이 경계를 내렸다는 점괘가 나왔다. 그럼에도 그가 흉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가 결국 처형되고 말았다. ㉕ 오나라 왕 리우 폐(劉濞) 때에 큰 바람이 불어 문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혔다. 그 점괘도 앞과 같았으나 리우 폐가 경계할 줄을 모르다가 결국 패망해 버렸다. 또 ㉖ 『상서지』에는 ‘부역이 공평하지 못하고 공물과 조세가 번거롭고 과중하여 백성들이 뒷사람을 원망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으니 옛일로써 지금의 일을 증험해 보면 어찌 재앙을 부른 원인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지금 온 나라에 노역이 끊이지 않고 백성이 나라에 바치는 비용이 많은데도 공부(貢賦)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연유로 하늘이 견책을 내린 게 아닌가 저어기 두려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 편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지금 국방과 나라 형편상 공부는 줄이고 면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신하들이 공정한 도리를 펴지 않아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었거나 혹은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품게 해 이와 같은 이변을 부른 게 아닌가 염려된다. 각자 마음을 고쳐먹고 재앙에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려사』 권2, 태조15년 5월)

④에서 고려 태조는 서경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큰 바람이 불어 관아가 무너진 현상을 각각 ㉔후안 수안(桓玄)과 ㉕리우 폐(劉濞)의 예를 들어 모반과 연결시키고, 『상서지』를 인용하여 ㉖부역·공물·조세가 과중해도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했는데⁷⁶⁾, ㉔와 일치하는 문장을 『서상지』 잔권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상서지』가 『서상지』인지 불확실한 것이다.⁷⁷⁾

그러나 필자는 ㉔가 직접인용이 아니고 화자가 인용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간접인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징조’, 즉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큰 바람이 부는 두 현상을 부역·공물·조세와 관련시

76) 且『祥瑞志』云: “行役不平, 貢賦煩重, 下民怨上, 有此之應.”

77) 김일권, 앞 논문, 259쪽.

킨 내용이 『서상지』에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상지』의 ‘風’ 항목을 보자.

⑤ ㉗ 한나라 문제(文帝) 5년, 오나라에서 폭풍으로 성과 관청, 민가가 무너졌다. 그 때 오나라 왕 폐(淝)가 역모를 꾸며서 하늘의 경계가 여러 차례 나타났으나 끝내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처형되었다. … ㉘ 소제(昭帝) 원봉 원년 연나라 도읍인 지(薊)에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 ㉙ 부림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를 ‘화(禍)’라 하며, 그 바람은 경(經)과 위(緯)를 자르는데[루춘(如淳)이 말했다. “파괴가 있고 피륙을 자른다.” 진주오(晋灼)가 말했다. “남북을 경(經), 동서를 위(緯)라고 한다. 바람이 심해서 실이 헝클어지면 간추리지 못한다.”], 그러면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면 벌레가 생긴다.

漢 文帝五年，吳暴風雨，壞城官府民室。時吳王 濞謀爲逆亂，天戒數見，終不改寤，後誅滅也。… 昭帝 元鳳元年，燕王都薊大風雨。… 賦斂不理，茲謂禍，厥風絕經緯[如淳曰：“有所破壞，絕匹帛之屬也。” 晋灼：“南北爲經，東西爲緯，絲因風暴難，不端理之也”]，止卽溫，溫卽虫。(『서상지』 권12, 風, 340쪽 1-2면)

⑤의 ㉗, ㉘에서 오나라 왕 리우 폐와 연나라 왕 만(旦)의 모반 사건의 징조로 큰 바람을 언급한 후, ㉙에서 부림(賦斂)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도 ‘경위(經緯)를 자르는(絶)’ 바람이 분다고 했는데, 부림은 조세를 매겨 걷는 일이고 경위를 자르는 바람은 루춘(如淳)의 주석대로 파괴를 수반하는 강풍이므로 비록 조세만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④의 ㉙와 상통하는 내용이다.

다음에는 『서상지』의 ‘鷄’ 항목에 나오는 『속한서』 「오행지」 인용문과 원문을 비교해 보자.⁷⁸⁾

⑥ 『續漢書』 「五行志」曰：“靈帝 光和元年，南宮侍中寺雌鷄化爲雄，身尾皆似雄，頭冠未變。詔問蔡邕。邕對曰：“貌之不恭，將鷄禍。今鷄身已變，未至於頭，是將有事而不成也。若政無所改，爲患滋大。”是後張角作亂，天下大崩。”(『천지서상지』 권18, 鷄, 402쪽 4면)

⑦ 靈帝 光和元年，南宮侍中寺雌雞欲化雄，一身毛皆似雄，但頭冠尚未變。詔以問議郎蔡邕。邕對曰：“貌之不恭，則有⁷⁹⁾雞禍。宣帝 黃龍元年，未央宮雌雞化爲

78) 『속한서』는 지금 전하지 않지만 그 「오행지」 등은 『후한서』에 붙어 전한다.

79) 『서상지』에서는 ‘則有’를 ‘將’으로 썼다.

雄, 不鳴無距. 是歲元帝初即位, 立王皇后. 至初元元年, 丞相史家雌雞化為雄, 冠距鳴將. 是歲后父禁為(平)陽[平]侯, 女立為皇后. 至哀帝晏駕, 后攝政, 王莽以后兄子為大司馬, 由是為亂. 臣竊推之, 頭, 元首, 人君之象; 今雞一身已變, 未至於頭, 而上知之, 是將有其事而不遂成之象也. 若應之不精, 政無所改, 頭冠或成, 為患茲大.” 是後張角作亂稱黃巾, 遂破壞. 四方疲於賦役, 多叛者. 上不改政, 遂至天下大亂⁸⁰⁾. (『후한서』 志13, 3273-3274쪽)

⑥은 ⑦의 발췌(긋은 글씨)인데 황건적의 난을 예로 들어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현상을 반란의 징조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⑦에는 “사방이 부역에 시달려 반란자가 많았다(四方疲於賦役, 多叛者)”고 하여 과중한 부역이 반란의 배경으로 나오므로 비록 발췌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지만 그 의미는 ⑥에 함축된 것이다. ⑥을 읽고 원문 ⑦을 참조해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징조와 반란의 공통 배경으로 과중한 부역을 지목할 수 있었다고 보면, 고려 태조가 ⑤의 ㉮와 ⑥을 근거로 ④의 ㉮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고 짐작된다. 더욱이 ④의 ㉮후안 수안의 고사는 『서상지』에도 나오고⁸¹⁾ ④의 ㉮리우 뼈의 고사도 ⑤의 ㉮에 나오므로, 결국 『고려사』에 나오는 ④의 ㉮, ㉮, ㉮는 모두 『서상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따라서 책 제목도 비슷한 『상서지』가 『서상지』가 아닌 다른 책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2) 『천지서상지』의 일본 전래

『서상지』는 일본에서도 아래 『삼대실록』 정관(貞觀) 18년(876) 8월 6일 기사에서 처음 인용된 이후 에도 시대까지 천변과 재이의 해석서로 자주 인용되었다.⁸²⁾

(876년) 해가 질 때 붉은 구름 여덟 줄기가 동쪽에서 일어나 서쪽을 가리켰는데, 폭이 거의 하늘 끝까지 미쳤다. 『서상지』에서 말했다. “하늘의 기운이 쌓이면 산 천에 구름이 생긴다.” 『점(占)』에서 말했다. “붉은 기운이 큰 길과 같고 한 줄기가 3, 4, 5 줄기가 되면 크게 사면이 되어 백성이 안락하다.”

80) 『서상지』에서는 ‘亂’을 ‘崩’으로 썼다.

81) 『서상지』 권18, 鷄, 402쪽 4면-403쪽 1면.

82) 水口幹記, 앞 책, 230-238쪽에 일본 문헌에서 『서상지』를 인용한 예 186개가 나온다.

日入之時, 赤雲八條起自東方, 直指西方, 廣殆及竟天. 『瑞祥志』曰: “天氣峙時, 山川出雲.” 『占』云: “赤氣如大道, 一條若至三四五條者, 大赦, 人民安樂.” (『삼대 실록』 권29, 정관18년 8월 6일)

그러므로 876년이 『서상지』의 전래 하한인데, 아마시타 카츠아키는 견당사가 마지막으로 귀국한 839년 이전에 전래되었다고 보았고,⁸³⁾ 미즈구치는 일본과 당나라와 교류가 단절된 이후인 정관(859-877) 연간에 발해를 통해 전래되었다고 보았다.⁸⁴⁾ 그리고 권덕영은 8-9세기에 전래되어 궁중의 비각(秘閣)이었던 냉천원(冷泉院)에 보관되어 있다가 875년 화재에서 살아남아 『일본국현재서목록(日本國現在書目錄)』에 기재되었다고 보았다.⁸⁵⁾ 이처럼 876년 이전 전래 시기는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757년 당시 음양료(陰陽寮)의 천문생(天文生)들이 배워야 했던 아래 기본 천문서들을 통해 전래시기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天文生者: 天官書、漢晉天文志、三色簿讚、韓楊要集. (『속일본기』 권20,天平寶字 원년 11월 계미)

위 책들은 구체적으로 『사기』 「천관서」, 『한서』 「천문지」, 『진서』 「천문지」, 『삼가부찬(三家簿讚)』, 『천문요집(天文要集)』을 지칭하는데 미즈구치는 이 책들이 『서상지』의 주요 인용서들과 겹침을 지적하고 이것을 『서상지』가 고대 일본에 비중 있게 수용된 배경과 연결시켰다. 즉 음양료에서 교육을 받은 천문 담당자들이 자신들에게 친숙한 천문서가 많이 인용된 『서상지』를 선호했다는 것이다.⁸⁶⁾ 물론 『서상지』 전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인용된 서적을 특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미즈구치의 견해대로 음양료의 천문서가 선정된 후 『서상지』가 전래되었다고 해도 천문서 선정과 천문서 인용은 독립적인 사건이므로 그 결과가 우연히 일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차라리 『서상지』가 먼저 수용된 후 거기에 자주 인용

83) 山下克明, “天文道の天文占とその典據”, 『古代文化史論攷』 16권 (1997). 水口幹記, 앞 책, 192쪽에서 재인용.

84) 水口幹記, 앞 책, 202쪽.

85) 권덕영, 앞 논문, 385-386쪽.

86) 水口幹記, 앞 책, 256-258쪽.

된 서적들을 중심으로 음양료의 기본 천문서 선정이 이루어졌을 확률이 더 높다는 면에서 전래시기를 666년에서 757년 사이, 특히 신라와 일본 관계가 밀접했던 하쿠호(白鳳) 시대 후반기로 좁혀볼 여지가 있다.⁸⁷⁾

7세기 후반 천무(天武, 673-686)·지통(持統, 686-697) 재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하쿠호 후반기는 흔히 당의 문화적 영향 아래 율령국가가 형성되던 시기로 보지만, 약 30년 동안(669-702) 일본에서 건당사를 보내지 않아 당나라와 공적인 교류가 단절되었음을 감안하면 당나라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이 기간 동안 27회 사절을 파견한 신라의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⁸⁸⁾ 신라에서 유행한 『금광명경(金光明經)』 신앙과 쌍탑 가람 양식, 사원의 국가 소유, 화장(火葬) 등이 이 시기 일본에 나타났다는지⁸⁹⁾ 불상 조각에 신라의 영향이 보인다든지⁹⁰⁾ 후지와라쿄(藤原京)의 도성 구조가 신라 왕경(王京)을 전범으로 했든지⁹¹⁾ 하는 예가 이를 입증한다.

역법의 전래를 통해서도 신라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674년에 신라의 덕복이 당나라에서 배워 온 인덕력(麟德曆)이 의봉(儀鳳) 연간(676-679)에 일본에 전래되어 ‘의봉력(儀鳳曆)’으로 지칭되고 690년부터 공식적으로 쓰였기 때문이다.⁹²⁾ 또 천무 재위기에 천문에 능한 행심(行心)이라는 신라 승려가 있었고 그의 아들 융관(隆觀)은 의봉력에 능했음을 보면⁹³⁾ 같은 시기 점성대(占星臺) 설치, 천문 관측 기록의 증가 등⁹⁴⁾ 일본 천문학의 융성이 신라와 무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최초의 천문대인 점성대와 신라의 침성대(瞻星臺)의

87) 이 시기 양국의 밀접한 관계는 백제-고구려 멸망 후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 중이었고, 일본 역시 663년의 백촌강 전투에서 패한 후 당나라의 침공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있다.

88) 연민수, “고대 한반도문화의 일본전래—07년도 검정 고교일본사교과서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30집 (2008), 65-66쪽; 毛利久, “白鳳彫刻の新羅的要素”, 田村圓澄·洪淳稔 편, 『新羅と飛鳥・白鳳の佛教文化』 (東京: 吉川弘文館, 1975), 122-127쪽.

89) 田村圓澄, “飛鳥・白鳳佛教の諸相”, 『古代朝鮮佛教と日本佛教』 (東京: 吉川弘文館, 1980), 170-172쪽; 中井眞孝, 『朝鮮と日本の古代佛教』 (大阪: 東方出版, 1994), 32-35쪽.

90) 毛利久, 앞 논문, 142-144쪽.

91) 양정석, “新羅 王京과 日本 藤原京—日本 藤原京의 新都城制 수용을 중심으로”,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9권,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8), 66-67쪽.

92) 細井浩志, 『古代の天文異變と史書』 (東京: 吉川弘文館, 2007), 52쪽.

93) 같은 책, 131쪽; 같은 책, 52쪽.

94) 같은 책, 315쪽.

명칭이 사실상 같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우선 중국어 중고음에서 ‘占’과 ‘瞻’은 장모(章母)·염운(鹽韻)에 속하고 소운자(小韻字)도 ‘첨(詹)’으로 그 음이 완전히 같았고⁹⁵⁾ 이를 수용한 신라 한자음도 같은 ‘덤’이었다고 볼 수 있다.⁹⁶⁾ 의미에서도 『이아(爾雅)』에서 “瞻, 視也”, 『방언(方言)』에서 “占, 視也”, 『광아(廣雅)』에서 “占, 瞻也”라 했듯이 공유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占’과 ‘瞻’은 통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첨성대의 별칭으로 점성대가 보이는 것도⁹⁷⁾ 그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일본서기』의 ‘점성대’는 『삼국유사』의 ‘점성대’처럼 ‘첨성대’의 다른 표기로 볼 수 있는데, 그 명칭을 신라에서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⁹⁸⁾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서상지』가 점성대 운용을 위한 천문서로서 전래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 시기는 점성대가 정월에 건립되고 2월부터 신라 왕자 김충원(金忠元)이 일본을 방문한⁹⁹⁾ 675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듬해인 676년 4월에 아쿠나미군(飽波郡)에서 보고한 “雌鷄化雄”¹⁰⁰⁾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는 일본 최초의 기록인데 『한서』, 『속한서』, 『진서』 등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기사 출현의 시기 면에서 『서상지』에서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속일본기』의 701, 749, 750년 기사에서¹⁰¹⁾ 황금 출현이 상서로운 일로 해석되었는데¹⁰²⁾,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예두위의(禮斗威儀)』와 『손자서

95) 정연식, “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첨성대”, 『역사와 현실』 74호 (2009), 359-360쪽.

96) 장(章)모는 고대한국어에 ‘t-/k-’로 수용되었다. 엄익상, 『한국한자음 중국식으로 보기』 (한국문화사, 2008), 118쪽.

97) “陵在占星臺西南.” 『삼국유사』, 왕력, 내물 마립간.

98) 정연식, 앞 논문, 360쪽에 의하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占星臺’의 ‘占’은 ‘瞻’의 오기일 수도 있지만, 『일본서기』의 ‘占星臺’까지 아울러 생각하면 음이 같고 통하는 의미(視)도 있는 두 글자가 같은 언어 환경 ‘-星臺’에서 통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첨성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일본의 점성대가 경주 첨성대와 같은 형태였다고 생각되지도 않지만, 그 명칭은 ‘별을 보는 대’라는 의미로 천문 관측 시설의 명칭으로 쓰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99) 『일본서기』 권29, 천무 4년 1월 경술, 2월, 4월, 8월.

100) “是日, 倭國 飽波郡言: “雌鷄化雄.”” 『일본서기』 권29, 천무 5년 4월. 여기서 飽波郡은 奈良縣 生駒郡으로 추정된다. 『日本書紀』 下 (東京: 岩波書店, 1965), 592쪽.

101) “對馬嶋貢金.” 『속일본기』 권2, 大寶 1년 3월 갑오; “陸奥國始貢黃金. 於是, 奉幣以告畿內七道諸社.” 『속일본기』 권17, 天平勝寶 1년 2월 정사; “駿河國守從五位下橘原造東人等, 於部內廬原郡 多胡浦濱, 獲黃金獻之.” 『속일본기』 권18, 天平勝寶 2년 3월 무술.

응도(孫子瑞應圖)』의 인용문으로 『서상지』에 나온다.¹⁰³⁾ 황금 출현을 상서롭게 본 것은 다른 문헌에서 찾기 힘든 희귀한 내용인데 『예두위의』와 『손자서응도』가 직접 참조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유서(類書)로서 편리하게 쓰일 수 있었던 『서상지』가 참조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이 역시 701년 이전 『서상지』의 일본 전래를 추정케 한다.

5. 편찬자 살수진의 실체

이 장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근거로 살수진이 신라인 설수진이라는 전제 아래 그의 태사 관직과 중국 문헌 인용, 인덕 연호 사용 등 문제를 차례로 해명하면서 그의 실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태사는 신라에서 확인되지 않는 관직이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설수진이 당나라 고종에게 표를 올린 정황도 있으므로 신라인이 당나라에서 받은 당나라 관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태사, 즉 비서감¹⁰⁴⁾은 비서성의 장관으로서 산하기관인 태사국과 저작국에 소장된 문헌을 열람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서상지』에 인용된 방대한 중국 문헌도 자연스레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현종 때의 차오 형(晁衡)¹⁰⁵⁾처럼 주변국 사람이 비서감 직을 맡은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라인이 그 직을 수행했다고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만 『서상지』에서 천문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당시 신라에만 머물면서 그 정도로 천문에 능통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나라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천문을 공부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이고, 또 그 경우에도 대왕전하의 뜻을 받들어 천문서를 편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유일한 천문 교육기관인 태사국에서 습득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02) 細井浩志, 앞의 책, 82쪽.

103) “君乘金而王, 其政平則黃金見深山.” 『서상지』 권16, 金, 378쪽 1면; “黃金者王者不藏, 金玉現出深山.” 『서상지』 권16, 金, 378쪽 1면.

104) 662년에서 670년 사이 단기간에 ‘비서상’이 ‘난대’로, ‘비서감’이 ‘태사’로, ‘태사국’은 ‘비각국’으로, ‘태사령’은 ‘비각랑중’으로 개칭되었다가 원상회복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했다. 이하 혼동을 막기 위해 개칭 전 명칭으로 적었다.

105) 원래 아베노 나카마로(阿倍仲麻呂)였는데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건너와 다시 귀국하지 못하고 당나라 조정에 출사했다.

그런데 7세기 중반에 신라인이 당나라에 공식적으로 오래 머무를 기회는 숙위(宿衛) 파견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숙위는 당나라 궁중 수비를 맡은 친위군을 지칭하는데 주변국에서도 왕자나 귀족 자제들을 많이 파견했고, 특히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해 고구려, 백제에 대항하고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 숙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다만 최치원으로 대표되듯 나중에는 다양한 성씨들이 숙위로 나가지만, 7세기에는 김문왕(金文王), 김인문(金仁問), 김한림(金漢林), 김삼광(金三光) 등 김씨 일색이었다. 숙위 파견이 이처럼 배타적이었다면 설수진이 숙위로 나가지 못했겠지만 설씨가 당에 숙위로 건너간 예가 설요(薛瑤)의 묘지명에 보인다.

희인(姬人)의 성은 설(薛)씨인데 본래 동명국왕 김 씨의 후손이다. 옛적에 김 씨 왕에게 아끼는 아들이 있어서 설(薛) 땅에 식읍을 나누어주었으므로 성으로 삼았다. 대대로 김 씨와 혼인을 했고 고조와 증조는 김 씨 왕의 귀신대인(貴臣大人)이었다. 아버지 영충(永沖)은 고종 때에 김인문과 당나라에 들어왔는데 황제가 그 공을 기려 좌무장군을 제수하였다.

姬人姓薛氏，本東明國王 金氏之胤也。昔金王有愛子，列食於薛，因姓焉。世與金氏爲姻，其高曾皆金王貴臣大人也。父永沖，有唐 高宗時與金仁問歸國，帝疇厥庸，拜佐武將軍。(『陳拾遺集』 권6, 館陶郭公姬薛氏墓誌銘)

693년 당나라에서 죽은 설요는 15세에 아버지가 죽자 여승이 되었다가 6년 만에 환속해 꾸오 전(郭震)에게 시집을 갔는데, 환속하면서 지은 ‘반속요(返俗謠)’는 한국 최초의 여류 한시로 평가되기도 한다.¹⁰⁶⁾ 설요의 아버지 설영충은 고종 때 김인문과 당나라에 들어와서 좌무위장군(佐武衛將軍)이 되었는데, 좌무위(佐武衛)는 궁궐의 숙위를 담당하던 기관이었으므로 그가 신라인 숙위였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설 씨가 김 씨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기록이다. 노중국의 고증에 의하면 묘지명에 나오는 김 씨 왕(金王)은 지증왕(500-514)인데 64세에 즉위했을 때 이미 법흥(法興)과 입종(立宗)이라는 장성한 아들이 있었지만, 새로 모랑부(牟梁部) 상공(相公)의 딸을 후비로 맞아들여 낳은 아들이 설(薛) 땅¹⁰⁷⁾을 식읍으로 받고 설 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다.¹⁰⁸⁾ 즉

106) 이종문, “薛瑤의 返俗謠에 대한 한 考察”, 『漢文學研究』 9집 (1994), 2쪽.

이 가문은 여러 대에 걸쳐 김 씨 왕실과 혼인을 하고 설요의 고조와 증조 대까지 귀신대인(貴臣大人)으로 진골 지위를 유지하지만, 이후 가문의 지위가 떨어져 설 씨로 성을 바꾸었으리라 추측된다.¹⁰⁹⁾

이상은 설영충 가문의 내력이지만 6두품 신분을 비판하여 621년 당나라로 건너간 설계두(薛闕頭)나 아찬(6등급)이었던 설수진 자신, 사찬(8등급) 설오유(薛烏儒) 등 기록에 남은 7세기 설 씨들이 6등급 이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낮은 지위는 설 씨들의 전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숙위에 설 씨가 포함된 이유는 설 씨가 왕족인 김 씨에서 분기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설수진이 당나라에 숙위로 머물렀을 정황은 일단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설수진이 숙위로서 태사국에서 습업할 수 있었는지 보겠다. 일반적으로 숙위는 무관직인 진자 ‘숙위’와 실제로는 당의 국자감에서 공부한 관비 유학생이었던 ‘학생’으로 양분되었다고 보지만,¹¹⁰⁾ 이 경우 무관일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학생이라도 국자감에서 천문·역법을 가르치지는 않았기 때문에¹¹¹⁾ 숙위가 이 분야를 공부할 기회는 전혀 없게 되는데, 숙위로서 천문과 역법을 배워온 다음 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다.

① 봄 정월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숙위하던 대나마 덕복(德福)이 역술을 배워 돌아와서 새로운 역법을 고쳐 썼다.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4년)

② 윤중(允中)의 서손 암(巖)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방사(方士)의 술법을 익히기 좋아했다. 그는 젊었을 때 이찬이 되어 당나라에 들어가서 숙위했는데, 틈틈

107) 『삼국사기』 「지리지」에 ‘薛’이 들어가는 지명은 없지만 ‘薛’과 통용된 ‘薩’이 들어가는 지명으로 삼년산군(三年山郡, 충북 보은)의 영현인 살매현(薩買縣)이 있다. 자비 마립간 13년(470)에 신라가 삼년산성을 쌓고, 소지 마립간 8년(486)에 개축하였다는 「신라본기」 기록이 있으므로 괴산군 청천면(淸川面)에 비정되는 살매현은 지증왕 때 신라 영역이었고, 설 땅의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삼국사기』 권34, 三年郡.

108) 노중국, “新羅時代 姓氏의 分枝化와 食邑制의 實施”, 『한국고대사연구』 15권 (1999), 197-203쪽.

109) 같은 논문, 212쪽.

110) 신형식, “宿衛學生考”, 『역사교육』 11·12권 (1969), 72-73쪽.

111) 국자감의 육학(六學) 가운데 국자학(國子學), 태학(太學), 사문학(四門學)은 입학생의 신분제에 의한 구분일 뿐 유학을 배우는 같은 과정이었으며, 율학(律學)은 법률, 서학(書學)은 글씨, 산학(算學)은 수학이었다. 『신당서』 권49, 選舉志上.

이 스승에게 나아가서 음양의 술법을 배웠다. … 대력(766-779) 연간에 본국으로 돌아와 사천대박사(司天大博士)가 되었고 양주, 강주, 한주 3주의 태수를 지내고 집사시랑, 패강진의 두상이 되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정성을 다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농번기를 지난 여가에는 육진병법을 가르치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편리하게 여겼다. (『삼국사기』 권43, 김유신 열전)

이에 대해 이상필은 『삼국사기』, 『동문선』, 『고운문집(孤雲文集)』 등에 나오는 ‘숙위학생’을 ‘숙위’와 ‘학생’의 양면성을 지닌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¹¹²⁾ 숙위학생은 해당 관청에 소속되어 천문·역법 등 기술학을 배울 기회가 있었음을 논증하였다. 즉, ①에서 덕복이 숙위로서 역법을 배웠고, ②에서 김암도 젊었을 때 숙위로 갔다가 귀국하자마자 사천대박사(司天大博士)에 임명되었으므로 그들을 태사국에 배속되어 공부한 숙위학생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태사국에서는 역생(曆生) 36인과 천문생(天文生) 60인을 두었으므로 그들은 각각 역생과 천문생으로 습업한 후 귀국했다는 것이다.¹¹³⁾

따라서 설수진은 숙위학생으로 본다면 『서상지』를 편찬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숙위로서 병법을 배우고 학생으로서 천문을 배웠다고 하면 그가 병법가와 천문가의 양면성을 보이는 것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점은 ②에서 천문과 육진병법에 능했다고 나오는 김암도 마찬가지이다. 설수진은 당시 태사령이었던 리 춘평(李淳風) 밑에서 습업하는 틈틈이 태사국의 문헌과 인접 부서인 저작국의 문헌을 참조하여 『서상지』를 찬술했을 것이다.

한편 설수진의 숙위 근무는 그의 관직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준다. 당나라에서는 귀국하는 신라의 사신이나 숙위에게 정원 외 명예 관직을 수여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① (650년) 6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백제 군사를 쳐부순 것을 알렸는데, 왕이 비단을 짜서 오언시 「태평송」을 지어 무늬를 놓았다. 춘추의 아들 법민을 보내 당나라 황제에게 바쳤는데 그 가사는 이렇다. … 고종이 이를 칭찬하고 법민을 임명하여 태부경(太府卿)으로 삼아 돌려보냈다.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4년 6월)

112) ‘숙위학생’은 그 동안 ‘학생’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었다. 신형식, 앞 논문, 77쪽.

113) 이상필, “新羅의 宿衛·習業學生·宿衛學生의 性格과 活動”, (경북대학교 석사 논문, 2010), 22-29쪽.

② (714년) 윤2월에 급찬 박유(朴裕)를 당나라에 보내 새해를 하례하니 조산대부(朝散大夫) 원외봉어(員外奉御)란 관직을 주어 돌려보냈다. (『삼국사기』 권8, 성덕왕 13년 윤2월)

③ (718년 6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했는데, 당나라에서 수중랑장(守中郎將)의 벼슬을 주어 돌려보냈다. (『삼국사기』 권8, 성덕왕 17년 6월)

④ (806년 3월) 당나라 헌종(憲宗)은 숙위하는 왕자 김헌충(金獻忠)을 귀국시켜주고, 시비서감(試秘書監)의 벼슬을 주었다. (『삼국사기』 권10, 애장왕 7년)

②, ④에서 관직 앞에 붙은 ‘員外’, ‘試’ 등은 이러한 명예직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하겠으며, ①의 태부경(太府卿)이나 ③의 수중랑장(守中郎將)도 ‘員外’, ‘試’ 등이 안 붙었지만 역시 명예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④에서 숙위 김헌충이 받은 시비서감(試秘書監)은 정식 임명되기 이전의 비서감인데 바로 666년 당시의 태사 직에 해당한다. 후대의 일이지만 신라인이 명예 비서감 직을 받은 예가 있으므로 이전에 설수진이 그 명예직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674년에 아찬, 666년에는 그 이하였을 설수진이 종3품 비서감 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신라의 견당사들이 받은 관작을 분석해 작성한 표 5를 참조하면 그들은 대개 본국의 관작과 비슷한 수준의 관작을 받았고¹¹⁴⁾ 숙위들도 예외로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신라	이별찬	이찬	잡찬	파진찬	대아찬	아찬	일길찬	사찬	급찬	대나마	나마	대사	사지	길사	대오	소오	조위
당	1품	2품	정3품	종3품	정4품	종4품	정5품	종5품	급찬	정6품	종6품	정7품	종7품	정8품	종8품	정9품	종9품

표 5. 신라 관등과 당나라 관품 대비표. 권덕영, 『고대한중외교사』 (일조각, 1997), 183쪽.

그러나 설요 묘지명에 고종이 설영충의 공을 기려(帝疇厥庸) 종3품 좌무위장군(佐武衛將軍)에 임명한 예가 보이듯이,¹¹⁵⁾ 설수진도 어떤 공을 세워

114) 권덕영, 앞 책, 182-183쪽.

관례보다 높은 관품을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리고 그 공을 짐작케 하는 것이 그가 올린 표의 내용이다. ‘祗承譴誠’라는 핵심어의 공유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표는 계처럼 재이설(災異說)을 논하는 내용인데,¹¹⁵⁾ 표에 그런 내용이 언급되었다면 설수진이 『서상지』를 편찬한 공으로 관례보다 높은 관직을 받고 귀국 직전 고종에게 사례하는 경우 이외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은가 한다. 주변국에서 와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습업에 그치지 않고 분량이 20권이나 되는 책을 저술했다면 치하할 만했을 것이다.¹¹⁷⁾ 그리고 오랜 해외 생활 끝에 귀국해 아직 신라 관직이 없었던 설수진은 당에서 받은 관직을 임시로 계에 적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덕 3년’ 연호 문제는 자오 이와 진 청위의 견해를 따르면 납득이 가능하다. 설수진은 666년 1월 초 이후 개원 사실을 알고 당을 떠났는데 창안에서 경주까지 약 석 달이 걸리므로 『서상지』의 계를 쓴 4월은 귀국 직후였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인덕 연호를 쓰고 있던 신라에 갓 귀국한 설수진이 계에서 새 연호를 임의로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라의 법령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공문서에서 신구 연호가 혼용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개원 사실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새 연호를 쓴다는 공식 포고가 있기 전에는 기존 연호를 그대로 쓴다는 규정은 신라에 존재했으리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수진이 새 연호를 쓰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신라 관인(官人)의 적절한 태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6.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필자는 『서상지』 편찬자가 신라인이라는 점에 대해 궁정론을 넘어 확신론 쪽에 서게 되었지만 아직 미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

115) 노중국, 앞 논문, 197쪽에서는 660년 11월에 김인문 등이 당나라에 들어갔을 때 백제 멸망에 대한 논공행상이 이루어졌고, 그 때 설영충이 좌무위장군직을 받았다고 추정했다.

116) 표에서 “夫帝王者配德天地” 이하는 『진서』 「오행지」의 인용이고 계에서도 『진서』 「천문지」를 많이 인용했으므로(水口幹記, 앞 책, 256-258쪽), 표와 계는 『진서』를 인용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117) 물론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피휘 문제가 걸린다. 태사국에서 피휘를 하지 않은 천문서를 저술할 수 있었는지, 당나라에서 일단 피휘했다가 귀국 후 복구했는지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한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본 논문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필자의 결론을 정리하겠다.

첫 번째, 편찬자 살수진은 당나라 연호가 3개월 전에 바뀐 줄 알면서도 새 연호 ‘건봉’ 대신 기존 연호 ‘인덕’을 썼는데, 이는 당나라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당나라 수도에서 경주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살수진이 연호 개정 소식과 함께 갓 귀국해 아직 신라에 새 연호가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연호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권1의 대왕전하에게 올린 계(啓)에는 황제에게 올리는 표(表)에 적합한 문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적 예(禮)에 어긋나는 서식은 당나라에는 있을 수 없지만 신라에서는 확인되므로 살수진이 신라인일 가능성이 역시 제기된다.

세 번째, 『서상지』에는 당나라의 피휘가 거의 적용되어 있지 않아, 살수진이 당나라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피휘 글자가 나중에 복구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네 번째, 『서상지』에 나오는 이두 표기는 살수진이 신라인이라는 결정적 근거이다. 살수진이 당나라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왜 이두 표기가 그의 저술에 나타나는지는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삼국사기』의 신라 천문 기록에 668년부터 방위가 아닌 별자리로 천구상의 위치가 기록되기 시작했고 932년에 고려 태조가 『서상지』를 인용했음이 『고려사』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신라에서 『서상지』가 666년 헌상된 직후부터 통일신라 말기까지 전승되었음을 시사한다.

여섯 번째, 『서상지』는 일본이 당나라와 공식 교류를 끊고 신라에서 문물을 도입하던 하쿠호 시대의 후반기인 675년에 점성대 운영의 지침서로 일본에 전래되었다고 추정된다.

일곱 번째, 살수진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아찬 설수진과 동일인이며 당나라에서 숙위학생으로 병법과 천문을 공부하면서 『서상지』를 편찬했고 귀국할 때 명예직으로 태사 직을 받았다고 추정된다.

A Study on the Author of *Cheonji Seosangji*

PARK Seung-Hong

Abstract. *Cheonji seosangji* (天地瑞祥志, *Records of Auspicious Omens of Heaven and Earth*) is a book of astronomy and Confucian portentology, completed in 666. The author, Sal Sujin (薩守眞, Sa Shouzhen in Chinese) has been considered as an astronomer of Tang, China, but recent studies suggest that he might be the same person as Seol Sujin (薛秀眞), a military tactician of Silla, Korea. This paper approves it by taking a linguistic approach to the text and tracing the circulation of the book in Korea and Japan. Some Chinese characters in the text, such as 'jung' (中) and 'ji' (之), turn out to be typical examples of the Idu (吏讀) script, the archaic Korean writing system using Chinese characters, and it clearly indicates that the author is from ancient Korea. The first official use of ancient Chinese constellations by Silla astronomers in 668 was possibly triggered by the introduction of *Cheonji seosangji* and the quotation from the book in 932 also hints at its Silla origin. Japanese astronomy flourished while Japan stopped dispatching envoys to Tang from 669 to 702, and *Cheonji seosangji* seems to have been introduced into Japan at that time. It is concluded that Seol Sujin completed the book in Tang in January, 666 and returned to Silla in April, 666.

Key words. *Cheonji seosangji*, Tiandi ruixiangzhi, Seol Sujin, Sal Sujin, Sa Shouzhen, history of Korean astronomy, Confucian portentology, portent, Idu, Silla, Tang, Japan